

2020년 04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해당사항 없음'

일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 프로그램 명 : 바로보는TV 음부즈맨
- 편성시간

기존	본방송 매주 일 04:00~04:30(재방송 매주 월00:25~00:55)
변경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김홍태	04/05	<뉴스특보>	
이재원	04/12	<뉴스1번지> <뉴스특보>	
이정훈	04/19	<뉴스특보> <뉴스리뷰> <뉴스투나잇>	
김창숙	04/26	<뉴스특보>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분	성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 변호사	2018. 06. 28	-
활동	이정훈	대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2015. 11. 26	-
활동	이재원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교수	2016. 08. 23	-
활동	김창숙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2018. 12. 27	-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0 4/5(일)	김홍태	3월 28일 저녁 6시 [뉴스특보]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n번방 사건 수사 배경에는 600만 가까운 국민이 몰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n번방 사건에 대한 이례적으로 빠른 수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비롯되었으며, 코로나키트에 대한 이름을 독도로 짓자는 창의적인 청원까지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은 보도내용처럼 국민의 여론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이러한 장점을 명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다만, 판사 배제라든가 범죄의 정도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언급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국민청원으로 공론화되는 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자들이 놓치고 있는 사안들이 수면위로 드러나는가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다소 악용되는 것 같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사회부에서는 이런 사안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짚어주는 보도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4/12(일)	이재원	지난 4일 [뉴스1번지]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유럽과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정책을 선화하면서 전 세계 '마스크대란'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들 간에도 마스크를 확보하기 위해 웃돈을 주고 다른 나라가 계약한 물량을 가로채는 사례를 제시했는데요. 해당 보도는 비행기가 착륙하는 장면과 물자를 수송하는 장면에 "프랑스의 한 공항에 마스크를 대거 실은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의료물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서 10	방송화면 출처를 명시하는데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억개 이상의 마스크를 주문했고, 이날 도착한 마스크는 1천만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선금을 내고 주문계약까지 맺었더라도 무사히 건네받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프랑스 지방의회 의장이 "마스크를 비행기에 실기 직전 미국 업체들이 나타나 3배 웃돈을 제시했고, 결국 거래가 불발"됐다는 말을 인용보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미리 주문한 물량을 프랑스가 더 높은 금액을 주고 가로챘다며 프랑스에 신사적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독일 역시 의료진을 위해 중국에서 주문한 마스크가 태국 방콕에서 행선지가 변경돼 미국으로 향한 걸로 파악됐다며 미국 성토에 가세했다고 마스크 쟁탈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연스 스판 독일보건장관의 발언을 영상과 목소리로 전하는 등 구체적인 자료를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의 출처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프랑스의 비행기 착륙 장면이나, 독일보건장관의 발언 등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자막으로라도 영상의 출처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보도의 마무리에 "코로나19 국면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은 사라지고, 중개업자를 동원한 치열한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고 AFP통신은 분석했습니다"라고 제시해 AFP통신 내용이라고 짐작할 수는 있으나, 통신사 보도의 어떤 내용까지 인용한 건지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2020 4/19(일)	이정훈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소식을 전하면서 초기 발생한 기술적 장애와 추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매우 시기적절한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 실시 결정 과정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던 교육 현장의 선생님이나 학생	원격수업과 관련해 사회부에서 몇몇 기사를 작성하기는 했지만 실제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를 섭외해 방송으로 내보내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인터뷰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이미 '원격수업'은 코로나 시대의 한 현상이 되었고 등교수업

		<p>들의 의견이나 궁금증을 좀 더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원격 수업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교육 현장이나 가정에서 원격 수업의 기술적 문제만큼이나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운영될 것인지 혹은 학생들은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나 염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학교와 가정의 소통이 제한적인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좀 더 후속 보도에 반영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이끄는 내용이 추가된다면 보다 유용하고 시기적절한 보도가 될 것입니다.</p>	<p>이후에도 병행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조명은 계속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과 선생님들의 불편함, 궁금증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p>2020 4/26(일)</p>	<p>김창숙</p>	<p>4월 19일 오후 6시 <뉴스특보>에서는 일본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수가 4월 19일 1만1천명을 넘어 한국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던 일본 정부는 발병 초기 코로나19 검사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시해 검사 수를 조절해왔으나 올림픽이 연기된 후 뒤늦게 검사건수를 늘리면서 확진자가 폭증하자 긴급사태를 전국으로 확대했지만 뒷보대응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내각이 마땅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당초 소득이 줄어든 가구에 30만엔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국민 1인당 10만엔, 우리돈 1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방침을 바꾸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까지 보이자 아베 총리의 정권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 주요 국가의 코로나 발생 현황을 알려주는 보도가 많은데도, 유독 일본 관련 보도에 있어서만 우리나라 현황과 비교하는 보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 최근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인데도, 국민의 생명이 걸린 민감한 사안이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아닌 만큼 불필요하게 서로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보도행태는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p>	<p>통계나 수치를 인용할 때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상황이나 이해하기 쉬운 비교대상을 설정해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대결 또는 경쟁적 구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p>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0. 04. 05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436회 - '연합 뉴스TV를 말한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텔레그램에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에 대해 보도했는데, 범행의 수법이나 형태가 매우 끔찍하여 국민의 공분을 샀다는 것을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수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등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과 자동차 극장 등을 이용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3월 25일 오전 9시 [뉴스특보]에서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됐다면서, 수감돼 있던 종로경찰서를 나오면서 얼굴이 공개됐음을 전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던 취재기자는 조주빈은 서울 종로경찰서를 빠져 나오면서 처음 얼굴을 드러냈는데,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포토라인에 섰고, 목에 깃스를 한 채 무표정으로 등장해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은 심경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조주빈은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자신에게 피해를 입은 분들께 사죄한다고 밝혔으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곧바로 음란물 유포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 범행을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이송차로 이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주빈은 성폭력특별법에 따른 피의자 신상 공개 첫 사례로써, 경찰은 조주빈 송치 후에도 박사방을 포함한 n번방 수사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며, 청와대까지 나서 관련 피의자 범법을 촉구한 만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을 전해주었습니다.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조주빈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는데도,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의 공범자 논란이 일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n번방 회원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이 사건에 대해 먼저 n번방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유료회원들을 공범으로 처벌가능한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유료회원들의 경우도 실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인식할 수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촉구가 필요해보였습니다. 또한 위 사건은 첨단방법을 동원한 범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 등이 보완돼야 하는지 보도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범죄의 동기에 경제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주빈이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 수익 몰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도해줬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현재 조씨의 협조가 없다면 범죄수익을 밝혀 이를 모두 몰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도, 금전이 오간 방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 모네펀이라는 불법거래의 대표적인 코인들이 이용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전의 지급방법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보도도 해야할 것입니다. 3월 28일 저녁 6시 [뉴스특보]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n번방 사건 수사 배경에는 600만 가까운 국민이 몰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이 모이면 여론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불으며 요즘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러 아이디어로 넘쳐난다고 하는데요. 기자는 2주도 안 됐는데 무려 600만 여명으로, 중북동을 고려해도 '억대급' 숫자라고 전하면서,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의 생생한 분노라고 전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청원에 문재인 대통령도 응답했다고 하는데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의,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음을 전했습니다. 이례적일 만큼 빠른 수사는 결국 여론이 이끌어난 성과로써, 정부와 국민의 직접소통이란 목적을 '국민청원'만큼 제대로 달성한 제도는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전했습니다. 민감률 경찰청장이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내용도 인용 보도했습니다. 청원에 쏠리는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데요, 평소 성범죄에 관대한 판결을 내려오던 판사를 n번방 판결에서 배제시키라는 청원과 특별조사팀을 여성으로 채워달라는 요구가 답변 요건을 충족했으며, 코로나19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 짓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온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사실관계 왜곡이나 진영갈등 가속화 같은 우려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이 여론의 바로미터라는 것만큼은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라고 전했습니다. n번방 사건에 대한 이례적으로 빠른 수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비롯되었으며, 코로나키트에 대한 이름을 독도로 짓자는 창의적인 청원까지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은 보도내용처럼 국민의 여론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이러한 장점을 명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다만, 판사 배제라든가 범죄의 정도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언급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3월 28일 오전 11시 [뉴스특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격리를 명령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자가격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거나 격리되게 하는 등 민폐를 끼치고 본인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기자는 2월 16일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23살 헬스 트레이너 A씨에게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지만 A씨는 헬스장에 방문해 일을 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고, 광주지방검찰청은 A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일이 있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3월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B씨와 어머니가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무시한 채 제주 여행을 다녀온 일도 있었다는데요, B씨는 여행 기간에 오한과 근육통을 느꼈지만 4박 5일 동안 제주에서 20여곳을 다니며 47명과 접촉했고, 서울로 돌아온 B씨는 지난달 25일, 어머니는 지난달 26일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50대 보철설계사 C씨는 3월 4일부터 감염 의심증상이 있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도 하고 활동하며 10여명과 접촉했다는데요, C씨의 아들도 감염됐다고 합니다. 아들 또한 증상발현 이후에도 학원에 출석했던 것으로 드러나 추가 감염이 우려되자 대전시가 부랴부랴 방역에 나섰다 전했습니다. 충북 증평에서도 미국 여행을 다녀온 60대 여성 D씨가 검체 검사를 받은 뒤 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은행과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8곳을 방문했다는데요, D씨와 접촉했던 10여명은 감염 공포와 격리라는 봉분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잦아 지자체와 방역당국은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 모녀에게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데 이어 형사처벌까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음을 보도했습니다. 3월 28일 저녁 6시 [뉴스특보]에서는 지자체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심리적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자동차 극장에 나가 있는 뉴스캐스터 연결했습니다. 성동구 살곶이 공원에 나가 있던 캐스터는 평소 운동장이었던 곳이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최근에는 자동차 극장으로 변신했음을 전했습니다. 자동차 극장을 기획한 성동구청 직원을 인터뷰했는데요, 진민석 성동구청 문화체육과 직원에게 자동차 극장을 기획하게 된 취지, 구체적인 영화상영 시간, 심리적 방역을 위한 또 다른 대책 등을 물었습니다. 성동구청이 운영하는 자동차 극장은 당초 사흘만 운영하려다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4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손 소독제와 체온계를 비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구급차가 대기 중이며, 운동장도 매일 방역해서 안심하고 가족들과 여유롭게 영화를 즐길 수 있다는데요. 관람료는 무료이고, 예약은 성동문화재단 홈페이지나 성동구청 문화체육과 관광팀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4월 5일까지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민 참여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선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매우 중요하고, 주말과 휴일 사람들이 붐비고 실내 같은 고위험 공간은 최대한 피해야한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바깥활동을 한다면 공기 흐름이 있고 2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으로 가야하며, 마스크 착용과 외출 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도 철저히 지켜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가 혼자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으므로,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인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가격리 등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보도에서 이를 위반한 사람들에게 민형사의 책임을 묻는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면 다른 사람들이나 소속 회사에 큰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고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예민한 상황인데요, 자동차 극장을 기획한 성동구청의 사례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경을 헤쳐 나가는 사람들의 소식이 많이 보도되고 선순환 효과를 내길 바랍니다.

● **이재원 시청자평가원(20. 04. 12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437회 - '연합 뉴스TV를 말한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는 등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한 국내외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지난 4일 [뉴스1번지]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유럽과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정책을 선회하면서 전 세계 '마스크대란'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들 간에도 마스크를 확보하기 위해 웃돈을 주고 다른 나라가 계약한 물량을 가로채는 사례를 제시했는데요. 해당 보도는 비행기가 착륙하는 장면과 물자를 수송하는 장면에서 "프랑스의 한 공항에 마스크를 대거 실은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의료물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서 10억 개 이상의 마스크를 주문했고, 이날 도착한 마스크는 1천만 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선금을

내고 주문계약까지 맺었더라도 무사히 건네받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프랑스 지방의회 의장이 "마스크를 비행기에 싣기 직전 미국 업자들이 나타나 3배 웃돈을 제시했고, 결국 거래가 불발"됐다는 말을 인용보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미리 주문한 물량을 프랑스가 더 높은 금액을 주고 가로챘다며 프랑스에 신사적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독일 역시 의료진을 위해 중국에서 주문한 마스크가 태국 방콕에서 행선지가 변경돼 미국으로 향한 걸로 파악됐으며 미국 성토에 가세했다고 마스크 쟁탈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에스 스페인 독일보건장관의 발언을 영상과 목소리로 전하는 등 구체적인 자료를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의 출처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프랑스의 비행기 착륙 장면이나, 독일보건장관의 발언 등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자막으로라도 영상의 출처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보도의 마무리에 "코로나19 국면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은 사라지고, 중개업자를 동원한 치열한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고 AFP통신은 분석했습니다"라고 제시해 AFP통신 내용이라고 짐작할 수는 있으나, 통신사 보도의 어떤 내용까지 인용한 건지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일 오전 9시 [뉴스특보]에서는 코로나19로 국외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이 속속 귀국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나랏돈으로 전세기를 투입해서 국민을 데려온 방식을 변경해 세금이 안 드는 새로운 방법으로 귀국을 돕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3일 모로코 국왕 지시로 우리 국민 105명을 태운 특별기가 귀국했고, 모로코로 돌아갈 땐 국내에서 구입한 국산 진단키트 등을 싣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정부는 중국과 일본, 이란, 이탈리아, 페루 등 다섯 나라에 전세기를 투입하느라 예산을 모두 썼고,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재정 낭비라는 비판이 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재외국민 귀국 지원 전략을 수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세르비아와 미얀마, 가봉도 우리 국민을 비행기로 태워다주고, 국산 의료장비를 싣고 돌아가는 방식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각국 한인회 차원의 임시항공편 마련을 돕거나, 제3국 전세기에 우리 국민을 같이 태우고 오게끔 주선하는 등의 방식도 동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 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세르비아는 우리 국민 5명을 의료장비 수송기로 귀국시키기로 했고, 미얀마는 방호복 수송기로 우리 국민 100명을 귀국시키기로 했으며, 가봉은 우리 국민 10명 미만을 의료장비 수송기로 귀국시킬 예정이라는 내용을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었습니다. 이 보도는 그 전에 보도되었던 모로코 한국 국민 귀국 관련 후속 보도를 전해줘 의미 있었습니다. 지난 6일 낮 12시 [뉴스특보]에서는 호주에서 코로나19로 외출 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재밌는 퍼포먼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쓰레기통 내놓는 일이라도 멋진 외출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개설됐다고 하는데요. 웨딩드레스를 입거나, 어린이용 자전거에 쓰레기통을 매달아 끌고 가다가 하면 육중한 크기의 장난감 탱크로 쓰레기통을 밀어 집 앞에 내놓는 등 고작 쓰레기통 하나를 집 앞에 내놓는데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외출금지령이 내려진 호주에서, 쓰레기통 내놓는 일이라도 멋진 외출로 만들자는 아이디어에 기상천외한 퍼포먼스가 펼쳐졌다고 그 배경을 전했습니다. 호주에 사는 대니엘라 에스큐 씨가 '쓰레기통 외출'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한 건데, 일주일 만에 19만명 넘게 가입할 만큼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며 영상의 출처인 페이스북 페이지와 게시물을 제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소통이 요구되는 때에 시의적절한 뉴스를 잘 발굴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느끼는 상황에서 잠시나마 웃을 수 있는 뉴스를 전해주어 의미

있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3시 [뉴스특보]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보건당국 책임자들이 영웅으로 떠올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샘 워커는 칼럼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하는 가운데 카리스마 있고 정치적으로 계산적인 선출직 지도자보다는 전문 관료가 진짜 영웅으로 떠올랐다"고 쓴 내용을 전하며,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과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 등을 꼽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정 본부장은 정보에 근거한 분석과 침착함은 대중이 신뢰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단신이었으나 우리 국민에게 반가운 보도일 뿐만 아니라, 리더십의 재정의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영상으로 제시하고 "단호한 메시지, 잘 분석된 정보, 침착함의 조화가 국민의 불안을 효과적으로 안정시켰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좀 더 전했다면 좋았겠습니다. 지난 3일 오전 10시 [뉴스특보]에서는 정부세종청사를 [현장연결]해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정부의 합동브리핑을 전해주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었습니다. 행안부 차관은 정부가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와 긴밀히 조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범정부 TF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사업 주관부처로서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을 담당하고 기획재정부는 추경예산 편성 및 소요재원에 대한 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안내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반영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는 내용과 세부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이유와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사례 등을 설명했으며, 취재진의 질의응답도 전해주어 국민들이 궁금해할만한 실질적인 정보를 빠르게 전했습니다. 지난 6일 낮 12시 [뉴스특보]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경심 교수 측은 그동안 부부 재판에 '망신주기'라고 반발해왔지만, 따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조국 전 장관 기소 당시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정 교수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정 교수 관련 부분을 분리해 우리 재판부와 병합을 희망할 경우 양쪽 재판부에 각각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밝히며, 사실상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지 않고 따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말한 결정 시한이 지났음에도 정 교수 측은 두 재판부 모두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이는 곧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그동안 정 교수 측이 부부 재판은 '망신주기'라고 반발하며 조 전 장관과 한 법정에 서는 것에 반대해 왔으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배경에는, 정 교수 측이 다음 달 10일이면 끝나는 구속기간 만료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정 교수 관련 부분을 분리해 병합할 경우 추가된 혐의를 근거로 재판부가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정 교수 석방을 위해 부부 재판을 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이미 하루 전 타매체에 나온 내용이기도

하지만 자막 처리 등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조국 부부 재판과 관련된 보도가 많지 않으나, 언론의 감시 기능을 발휘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6일 오전 6시 [뉴스특보]에서는 [선택 4·15] 코너로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말, 민주당은 수도권 격전지에 당력을 쏟으며 코로나19 극복을 강조했고, 통합당은 캐스팅보트인 충청권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아닌 나라경제 살리기를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엔 종로 유세에 집중했고 유세의 핵심 키워드는 '코로나19'로 감염병 극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위해 배달업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동 공약을 내놓으며 '원팀'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충청권으로 무대를 옮겨 "조국 전 장관을 살릴 거냐, 경제를 살릴 거냐"며 경제 실정론을 쟁점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인용보도했습니다. 민생당은 부산에 이어 대구, 울산 등 영남권을 돌았고 정의당은 텔레그램 n번방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중 유세를 벌였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행동을 강조하며 국토중추를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지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각 당의 공약사항과 후보들의 과거 발언 및 실현 정도 등을 날카롭게 분석해주는 보도가 늘어나 국민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정훈 시청자평가원(20. 04. 19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438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초·중·고등학교의 일부 학년은 온라인으로 개학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자가 격리 위반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이 제시된 한 주였습니다. 연합뉴스TV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실시 현황과 코로나19로 바뀐 투표 절차에 초점을 두고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10일 [뉴스투나잇] <선택 4·15>에서는 어느 때와 많이 달라진 사전투표 첫날 풍경을 전했습니다. 유권자들은 1m 간격 대기선을 따라 '거리두기'를 하며 이동하고 손 소독 후,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야 투표장에 입장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거대 양당의 이름이 정당투표 용지에서 빠지고 투표용지도 50cm에 달하다 보니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9시 [뉴스특보] <선택 4·15>에서는 사전투표 둘째날, 서울역 사전투표소를 현장 연결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의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고 전했는데요.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이번에는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다고 짚어 주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달라진 투표절차를 소개하면서 만약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따로 마련된 임시기표소로 안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할 때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서 얼굴을 보여주면 되는데 본인과 다른 유권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꼭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9시 [뉴스특보] <선택 4·15>에서는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26.69%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란 예상이 여지없이 빚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21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399만 명 가운데 1,174만 명이 투표에 참여해 사전투표율 26.69%를 기록했는데 4년

전 총선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분석했습니다. 권역별로는 전라도의 투표열기가 가장 뜨거웠고, 경상도, 특히 대구는 가장 저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은 투표율은 코로나 감염 우려로 '분산투표' 심리가 작용하고 무당층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선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제21대 총선 사전투표를 다루면서 투표 현황과 더불어 방역 절차를 중심으로 보도하였습니다.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이번 사전투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의 보도는 유권자들이 관심이 많았던 투표소 안의 방역 절차와 이에 따른 투표 절차의 변화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의 방역 절차나 투표 절차는 궁극적으로 4·15 총선의 일종의 사전 연습이라는 점에서 보다 꼼꼼한 점검이 필요했다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운 보도였습니다. 사전투표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한정된 공간에서 투표를 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좀 더 짚어주었다면 중앙선관위에 도움이 되고 유권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국내 중고등학교의 첫 온라인 개학 소식을 전하면서 원격 수업 실시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9일 오후 1시 [뉴스특보]에서는 전국 중·고등학교 3학년의 첫 온라인 개학이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개학 후 출석 체크와 강의를 위한 'EBS 온라인클래스'는 오전부터 먹통이 됐는데 별도 안내도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EBS와 교육부는 '이용자 과다로 발생한 접속 지연현상'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온라인 개학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 불편함, 어려움들은 교육부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영상이 끊기고 예러가 나는 등 불편이 지속되자, 교육당국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9일 저녁 6시 [뉴스특보]에서는 온라인 개학 첫 날 수업 방식이 교사마다 다양하다보니, 학생이나 학부모가 느끼는 만족도는 천차만별인데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을 학교가 고민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접속 과부하 같은 시스템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IT 기기를 통해 최대의 학습 효과를 이끌어 내야 하는 교사들의 역량이 원격수업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9일 [뉴스리뷰]에서는 전국 중학교와 고등학교 3학년이 원격으로 수업을 시작했다고 전하면서 참여 학생 수가 대폭 늘어나는 그 다음 주차에는 고비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3과 고3이 온라인 개학을 맞은 데 이어 16일에는 고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1, 2학년도 온라인 개학을 맞이한다고 앞으로 일정을 전했습니다. 향후 관건은 스마트 기기 확보와 안정된 인터넷 접속이라고 지적하면서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 기기가 부족한 학생은 22만3,0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인프라가 없는 일부 학교 교사들의 격정에 대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교육을 강조하면서 정작 온라인 시스템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현실에 대해 성찰이 필요하다"는 교총의 입장도 전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현재 스마트 기기 32만여 대를 비축해 적시에 대어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전국 중,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사상 첫 온라인 개학과 함께 원격수업을 위한 이들의 적응 기간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4월 셋째 주부터는 학생부 반영 가능한 수업일수 인정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교사가 자신의 교과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수업방식을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응기간 첫째 날 오전부터 학습관리시스템인 EBS 온라인클래스가 접속 장애를 보이기도 했는데 교육부는 "시스템 내부 구성을 변경해 정상화했

고, 이런 상황은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현 중·고등학교 3학년 약 85만 명 중에서 절반을 조금 밀도는 학생들이 'EBS 온라인클래스'와 'e학습터'를 이용하고, 그 외에는 다른 플랫폼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교육부는 향후 초·중·고생 전체 온라인 개학을 대비해, 실시간 접속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사전에 진단하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저녁 6시 [뉴스특보]에서는 이틀째인 중·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원격수업의 출석율이 99%에 육박했고 EBS 접속 장애는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EBS 온라인클래스가 교사들의 영상 업로드 시간을 제한해, 불편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고비는 16일 이뤄질 '2차 온라인 개학'으로 전국 초등학교 1~3학년을 제외한 404만여 학생이 원격수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의 4배 넘는 학생들이 접속하는 만큼, 서버 오류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소식을 전하면서 초기 발생한 기술적 장애와 추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매우 시기적절한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 실시 결정 과정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던 교육 현장의 선생님이나 학생들의 의견이나 궁금증을 좀 더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원격 수업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교육 현장이나 가정에서 원격 수업의 기술적 문제만큼이나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운영될 것인지 혹은 학생들은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나 염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학교와 가정의 소통이 제한적인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좀 더 후속 보도에 반영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이끄는 내용이 추가된다면 보다 유용하고 시기적절한 보도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격리 지침 위반 사례의 증가와 이에 대한 당국의 대처 방안에 대해 차분하게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8일 [뉴스투나잇]에서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외출했다가 적발된 자가격리자가 또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4시간 감시체계와 상황판 등으로 격리자 위치를 파악하고 있고 필수 사항인 안전번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기초자치단체의 전담 공무원이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밀착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격리자가 휴대전화를 두고 나오는 편법을 쓰더라도 전담 공무원이 불시에 전화를 걸었을 때 응하지 않으면 현장점검을 나간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경찰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일 낮 12시 [뉴스특보]에서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째 50명을 밑돌고 누적 완치율은 70%에 육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조용한 전파'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주말에 선거유세 장소, 부활절 종교행사 등을 통해 집단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자가격리자가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격리지침을 위반하면 본인 동의를 거쳐 '안심밴드'라는 이름의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는 방안과 동작 감지 기능 추가 등 자가격리 앱의 기능도 강화하는 방안 등을 2주안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자의 건강 상태를 하루 두 차례 말고도 무작위로 추가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합동으로 자가격리 장소 불시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사례의 증가 추세를 보도하고 정부의 대처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국가적 방역 체계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고 지침 위반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적절한 조치만큼이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보도에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만큼이나 그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만으로는 적절한 방역을 완성할 수 없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보다 자발적인 협력을 호소하는 내용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20. 04. 26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439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4월 15일, 21대 총선이 1992년 14대 총선 이후 최고치 투표율인 66.2%를 기록하며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로 인해 투표를 연기한 가운데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최초로 치러진 전국 선거라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초 저조한 투표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오히려 기대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 전 세계에 우리 국민의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보여준 선거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는데, 4월 16일 오전 11시 <뉴스특보>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던 취재기자는 개표 결과, 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63석, 통합당이 84석, 무소속이 5석, 정의당이 1석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비례대표 의석까지 더하면, 민주당과 시민당이 180석, 통합당과 한국당이 103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교섭단체 진입을 노렸던 소수정당은 의미있는 결과를 거두지 못해 정의당이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을 얻었고, 민생당은 1석도 얻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당의 180석은 국회 전체 의석수의 5분의 3을 확보한 것으로, 개정국회법인 선진화법에 얽매이지 않고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압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례 없는 일로, 이로써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4월 17일 오전 5시 <뉴스특보>에서는 이번 총선은 여야 각 당뿐 아니라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거물급 인사들의 명운을 갈랐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의원의 5선 도전이 좌초됐는데, 대구 재선에 성공했다면 여권 유일 'TK 대권주자'로 입지를 넓힐 기회였지만, 보수 본토의 벽은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부산이 보수 텃밭으로 회귀하면서 부산진급에서 고배를 마신 3선 현역 김영춘 전 해수부장관도 행보가 불투명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피말리는 접전 끝에 신승을 거두고 '낙동강벨트' 시수에 성공한 경남 양산을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 PK 좌장으로 떠오르며 대권 잠룡 입지도 확보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친노 핵심 인사인 이광재 전 지사는 강원 원주갑 당선으로 지역 맹주 명예회복에 성공해 9년 간의 공백기 동안 쌓은 내공으로 정치적 종량감을 한층 더해 잠룡 반열에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공천 갈등으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전 대표가 대구 수성읍에서 승리했으며, 무소속 김태호 전 지사도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서 극적 생환하면서 야권 잠룡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고 전했습니다. 통합당에 가장 쓴 패배는 서울 광진을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동작을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낙선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하면 차기 대선 유력 후보군으로 입지를 다질

것으로 여겨졌으나, 둘 다 정치 신인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이었던 21대 총선이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잘 마무리되어 다행인데요. 이번 선거보도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18세 이상의 청소년이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큰 변화가 있는 선거였음에도 변화된 선거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다소 부족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선거가 끝난 후에는 승자와 패자 프레임 보도, 인물 중심의 보도 등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제 총선도 끝났고,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권이 국난극복을 위해 모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한 만큼 향후 정책방향이나 문제해결방안 등 보다 현실적인 논의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17일 오전 10시 <뉴스특보>에서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과 관련한 서울 시민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정부가 4월 19일까지로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재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서울시민의 63.6%가 재연장 필요성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4월 10일부터 사흘간 설문조사한 결과, 97%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종료되고 어떤 시점이 되면 생활 방역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생활 방역체계 적정 시점은 확진자수에 상관없이 정부가 통제 가능한 대응 체계가 갖춰졌다고 판단할 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4월 20일 오전 5시 <뉴스특보>에서는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5월 5일 어린이날까지로 연장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부활절과 총선 때 대면 접촉 증가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있는데다 세계적 유행도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나들이 등 외부활동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부처님오신날과 노동절, 어린이날까지, 황금연휴가 고비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민 피로도와 경기 침체 등을 의식해 거리두기 강도는 일부 완화했는데, 종교시설과 학원, 생활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은 유지하되, 권고 수위는 운영 중단에서 운영 자제로 낮췄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운영을 재개하고, 프로야구 등 야외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등교 수업 여부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소 완화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정부와 국민들의 판단 하에 재연장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확진자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곳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느슨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사례처럼 자칫 방심한 사이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두가 조금만 더 조심해야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국민들의 경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19일 오후 6시 <뉴스특보>에서는 일본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수가 4월 19일 1만1천명을 넘어 한국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던 일본 정부는 발병 초기 코로나19 검사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시해 검사 수를 조절해왔으나 올림픽이 연기된 후 뒤늦게 검사건수를 늘리면서 확진자가 폭증하자 긴급사태를 전국으로 확대했지만 뒷북대응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내각이 마땅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당초 소득이 줄어든 가구에 30만엔을 지급하

기로 했다가 국민 1인당 10만엔, 우리돈 1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방침을 바꾸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까지 보이자 아베 총리의 정권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 주요 국가의 코로나 발생 현황을 알려주는 보도가 많은데요. 유독 일본 관련 보도에 있어서만 우리나라 현황과 비교하는 보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 최근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인데요. 국민의 생명이 걸린 민감한 사안이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아닌 만큼 불필요하게 서로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보도행태는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표 방송스틸컷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2020년 04월 05일 04시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0년 04월 12일 04시 / 이재원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0년 04월 19일 04시 / 이정훈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0년 04월 26일 04시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